

전국 쌀 생산량 감소 추세 속 전남은 재배면적 늘었다

전남지역 작년보다 1천253ha 증가
생산량 3만여t 늘어...전년비 4.3% ↑
고령 농민 기계화율 높은 벼 농사 선호
전국 생산량은 5년 연속 감소세 예상

벼 재배면적 축소로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5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전남지역은 오히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터가 8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벼 재배면적은 14만8천349ha로 집계됐다. 지난해 14만7천220ha보다 1천129ha 늘어난 규모다.

쌀 예상 생산량은 73만8천150t으로 지난해 70만9천190t보다 2만9천140t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가 전체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14만2천443ha에서 올해 14만3천660ha로 1천253ha 늘었다. 반면 광주는 같은 기간 4천777ha에서 4천653ha로 124ha 감소했다.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은 71만5천770t으로 지난해 68만6천540t보다 2만9천270t 증가했다. 생산량 증가율은 약 4.3%에 달한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농촌 고령화 심화로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가 노동력 대비 재배 부담이 적다는 점과 지난해 집중 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벼로 전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량은 올해 병해충 발생이 줄고 생육 기간 기상 여건이 양호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나 전체 쌀 생산량 증가를 견인했다.

광주는 지난해 2만2천515t에서 올해 2만2천380t으로 135t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351만8천t으로 지난해보다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은 2022년 376만4천t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생산량이 예상대로 확정될 경우 2020년 350만7천t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 된다.

벼 재배면적도 67만ha로 지난해보다 1.1% 줄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전락작물직불제와 논 타 작물 전환 사업 등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벼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0a당 예상 생산량은 525kg으로 지난해 522kg보다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데이터터치는 벼의 가지치기와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기상 여건이 양호하면서 포기당 이삭 수와 이삭당 낱알 수가 늘어난 데다, 벼알이 여우는 시기인 9월에도 일조시간이 충분했던 점 등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모두 증가한 지역은 부산과 전남, 경남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호기자

광은, 토스와 ‘스테이블코인 QR결제 기술검증’ 성공

앱 단말 연계 QR결제 과정 구현
디지털자산 서비스 가능성 확인

광주은행은 8일 “토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반 QR결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은 광주은행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향후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광주은행 모바일 앱과 토스 앱, 토스 플레이스 결제 단말을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QR결제 과정을 구현했다.

고객이 광주은행 앱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선택하면 토스 앱의 QR스캔 화면으로 연결

되며, 가맹점 결제 단말의 QR을 스캔해 결제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결제가 완료되면 스테이블코인이 고객 지갑에서 가맹점 지갑으로 전송되고, 결제 결과는 다시 광주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앱 간 연계를 통한 결제 전 과정을 구현했다.

이번 PoC를 통해 광주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송금과 QR결제 기능을 구현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정보 제공 기능도 함께 구성했다. 이를 통해 향후 결제와 송금, 정보 제공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검증은 상용 서비스와 분리된 별도 환경에서 진행됐다. 가상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과정을 구현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실제 자산은 사용하지 않고 결제와 정산 과정이 사전에 설계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주은행과 토스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PoC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거치는 단계를 줄여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전남·광주 지역 실제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 예정이다.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토스와 함께한 PoC는 디지털자산 결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관점에서 이용 경험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의 금융서비스와 토스의 결제 인프라를 연계해 고객이 익숙한 환경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기자

한전, 실명 예방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전력이 8일 ‘제56회 세계보건기구(WHO) 눈의 날’ 기념식에서는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눈의 날’은 WHO에서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보건복지부는 매년 눈 건강 증진과 실명 예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한전은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인 ‘Eye Love P

roject’를 통해 2011년부터 실명위기 안질환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수술비, 치료비, 진료비 등 눈 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을 대상(만 50세 이하)으로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눈 건강과 실명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이마트 제철 먹거리 할인 행사
이마트는 오는 14일까지 고동어, 생새우, 홍시, 가을 하우스 감귤 등 제철 먹거리를 할인 판매하는 ‘가을의 맛’ 행사를 연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이마트 모습.
/연합뉴스

광주경총, 제조업 안전 지원금 150만→300만원 상향

안전보건 시설·용품 지원금 2배 인상
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사업장 모집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소규모 제조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 시설 개선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8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지역 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위험 요인 제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제조업 대상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었

으나, 물가 상승과 실제 안전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지원 한도를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경총은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광주특별시에 소재한 소규모 제조업체다. 선정된 사업장은 전문가의 현장 안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장비 구입 및 시설 공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박선욱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있는

광양5일시장, 목곡5일시장,

진상5일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광양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목곡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진상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상설시장

광양매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중마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양시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